

EBS 소설 - 현대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문들 줄거리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갈매나무를 찾아서

줄거리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한 두현은 윤정과 이혼 후 시를 쓰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고 있다. 우연히 책 정리를 하다가 연애 시절 자주 가던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가게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정과 그 뒤에서 있는 갈매나무를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그곳을 찾아간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옥은 이미 없어지고 그곳에는 오리고기 식당이 생겼다. 두현은 그곳에서 식당 여주인과 술을 마시며 추억에 잠긴다. 갈매 무는 두현에게 있어 어린 시절 아픈 가시에 찢린 기억, 윤정과 함께 갈매나무 아래서 첫 키스를 하던 기억 등 아름다운 기억과 아픈 기억이 공존하는 대상이다. 술이 오른 두현은 백석의 시를 떠올리며 시 속에 등장하는 추운 겨울을 홀로 견디는 수칼매나무처럼 자신도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며 곳곳하게 살아 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주제

방황하는 삶 속에서 백석의 시와 그 안의 갈매나무를 통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의지

특징

백석의 시, 갈매나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함.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의지적 삶을 살 것이 암시됨.

2. 속삭임, 속삭임

줄거리

나는 어린 딸, 남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아재비에 대해 떠올린다. 아재비는 '나'가 태어날 무렵 '나'의 집에 들어온 인물로 과수원을 하며 살아가던 부모님이 산 밑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후 먼 친척이라며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그는 마을의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나'를 돌봐 주었다. 아재비는 장마로 생긴 웅덩이를 파서 '나'를 위해 호수를 만들어 줄 정도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 북한에서 월남해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아버지와 아재비는 남로당의 열성 간부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아재비는 사상적으로는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아버지와 아재비는 의형제처럼 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암호 같은 그의 편지 심부름을 몇 번 하였는데 그것은 만날 수 없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가 성인이 된 이후 어느 날 아재비는 오랜만에 집에 온 ‘나’에게 채송화 화분을 하나 주고는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나’는 아재비와 아버지가 함께 있던 과수원 풍경을 떠올리며 화해와 공존에 대해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딸에게 아재비의 사연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주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초월하는 평화와 공존, 대화를 통한 화해에 대한 지향

특징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서술 방식. 편지글을 통한 상념 제시(매우 추상적인 어투). 상징적 공간의 활용.

3. 만세전

줄거리

일본에서 문학을 배우기 위해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한다. 하지만 도중에 카페 여직원인 정자도 만나고 고베에 들러 올라도 만나는 등 녹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고, 일본인 사기꾼들이 우리 농민들을 유인해 노동자로 팔아먹는 현실을 보고는 민족적 울분을 느낀다. 부산에서 형사의 심문을 다시 받고, 또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나기도 한다. 서울로 올라가며 첩을 데리고 사는 김천 형님, 형사에게 끌려가는 조선 사람들 등을 만난다. 집에 와 보니,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한의학 맹신자인 아버지가 방치하여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 갇힌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의원은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아내는 결국 죽어버린다. 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던 중 대학에 진학했다는 정자의 편지를 받고 축하의 의미로 돈을 부쳐준 뒤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인 듯한 조선을 떠나 경쾌한 기분으로 동경으로 향한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특징

여로형 구조로 인해 인물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함. 주인공의 자아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져 유의해야 함. 주인공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져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함이 나타남.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은 갖추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 아내(나와 시대의 무관심에서 죽어가는 희생양)와 정자(진취적인 술집의 여직원)의 대비.

4. 제3 인간형

줄거리

6·25 전쟁 전에 작가였던 석은 피란지인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석은 교직을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곧 생활에 치여 잡문 하나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초조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작가였다가 전쟁 때 소식이 끊기고 온갖 소문만 무성하던 친구 조운이 그를 찾아온다. 석은 조운이 타고 온 고급 차에 동승하고, 술을 마시며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으나, 조운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며 미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이는 부유하게 자란 명랑한 성격의 문학소녀로, 세속적 가치에 초연했던 조운을 따르던 사람이다. 전쟁의 와중에 자동차 운수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운은 전쟁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미이를 부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를 돕고자 한다.

조운은 미이에게 다방을 차려 주겠다고 제의하지만, 미이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한다.

며칠 후 조운을 만나기로 한 날 미이는 간호 장교에 지원하여 시험을 보러 간다는 내용의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담은 종이 꾸러미를 다방에 남겨 두고 떠난다.

이를 계기로 조운은 자신의 정신적 타락을 뼈저리게 느끼며 석을 찾은 것이다. 석은 조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이에게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주제

사명과 생활 사이에서 방황하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식인의 고뇌
 지식인의 방황과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탐구

특징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지만 석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음. 다만 작품의 마지막에선 1인칭 시점으로 교체되는 특징. 제목인 제3 인간형은 석이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유형을 가르킴. (생활과 사명 사이에서 방황-> 전후 지식인의 고뇌). 조운 -> 생활을 위해 사명을 저버림. 미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명을 선택. 전쟁 전후로 인물들의 변화가 중요.

5. 장곡리 고욤나무

줄거리

이봉출은 사촌 형인 '이기출'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기출의 동네로 향한다. 기출의 동네로 가는 중 기출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던 일과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기출이 자식들과 싸웠던 일들을 떠올린다. 유산의 권리만 주장하여 싸우고만 있는 기출의 자식들을 향해 '기출의 아내'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비판하며, 실제로 그들이 받을 유산은 없다는 말을 봉출에게 한다. 실제로 기출은 농사를 지으며 벌린 빚 때문에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봉출이 알게 된다.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농촌 소외 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화와 실패한 정부의 농촌 정책.

특징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쓰인 소설이지만 봉출의 시선에 치우쳐있음. 사투리를 활용한 향토성 부여. 기출의 사후 봉출이 그를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역순행적 구조를 보임. 특정 소재를 통한 인물의 처지 암시.

6. 마당 깊은 집

줄거리

고향 진영에서 남의 집에 얹혀 지내던 '나(길수)'는 누나(선례)를 따라 대구로 와서 장관동 '마당 깊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남은 가족들(어머니, 누이, 두 남동생 길중과 길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 '마당 깊은 집'에는 위채로 불리는 주인집(여덟 식구)을 포함하여 피난민 네 가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네 가구는, 경기도 연백에서 피난 온 경기택 식구 셋, 퇴역한 상이 군인 가족인 준호네 식구 넷, 평양에서 피난 온 평양택 식구 넷, 대구에서 가까운 김천에서 내려온 김천택 식구 둘이었다. 주인집은 방직 공장과 금은방을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보다는 자기네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안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여름 장마로 인해 '마당 깊은 집'에 홍수가 났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한 위채는 마당에 물이 차 올라도 잠길 염려가 없었지만, 아래채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일어나 차오르는 물을 마당 바깥으로 퍼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하는데도 위채 사람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곤 한다. '나'의 가족은 어머니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택 가족은 치과 기공사인 아들과 미군 부대 PX에 근무하는 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준호네 가족은 과일·고구마·풀빵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양택 가족은 양키 시장에서 군복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마당 깊은 집'의 다섯 식구는 모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전쟁 이후의 험난한 세파와 싸우며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다가 주인집이 '마당 깊은 집'을 허물어 새 집을 짓는다는 통보를 하자, 다섯 가구는 제각각 살 집을 찾아 뿔뿔이 헤어지게 된다.

주제

전후 세대의 고된 삶에 대한 고발,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특징

'어머니'의 특징-> 모성보다 부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현실주의자. 갈등과 억압 의식의 형상화.

7. 곡예사

줄거리

'나'는 먼저 가족을 대구로 피난 보낸 후 뒤이어 도착한다.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택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집 장모 노파의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나'의 가족은 대구의 피난살이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후 다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부산의 변호사택에 방 한 칸을 얻어 피난살이를 이어 간다. 어린아이들까지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등의 경제적 행위에 내몰리는 피난살이를 이어 가던 중, 또 다시 얼마 가지 못하고 방을 배라는 주인의 요구를 듣게 된다.

‘나’와 아내는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 하지만 방을 얻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자신은 물론 자신들까지 곡예단의 곡예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디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처럼 슬픈 곡예사를 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긍정적 태도로 극복해 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주제

전쟁 시기 피난살이의 어려움에 대한 고발 및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통한 어려움 해결 추구.

특징

주인공 이름이 황순원임-> 자전적 소설. 처참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이 드러남. 윤택한 집주인과 궁핍한 피란민들 대조.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거기를 두고 서술.